



한국 양궁, 세계선수권 단체 전종목 결승행

여자단체 프랑스에 **슛오프 역전승**
장민희 ‘꺾임 한 장 두께’로 승부
남자 단체 첫 세트 내주고 승전가
도쿄 3관왕 안산 ‘다관왕’ 눈앞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1 세계선수권 단체전 3종목 싹쓸이 준비를 마쳤다.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사흘째 혼성 단체전(혼성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5-1(37-37 38-36 39-37)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산-김우진 조는 터기를 제압하고 올라온 러시아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안산과 김우진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한국 양

궁은 혼성전이 처음 도입된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6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독식한다. 여자와 남자 단체전에서도 준결승 승전보가 이어졌다. 두 팀 모두 첫 세트를 내주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는 안산과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한국이 프랑스와 슛오프 접전 끝에 5-4(53-57 51-54 54-53 55-53 <28+-28>)로 이겼다. 슛오프에서 양 팀 점수 합계가 28점으로 같았지만, 장민희가 쓴 화살이 과녁 중심부에 가장 가깝게 꽂혀 한국이 결승행 티켓을 확보했다. 경기 중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장민희의 화살과 프랑스 선수 화살의 차이가 ‘꺾임 한 장 두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여자 대표팀은 브라질에 6-0(53-51 57-49 55-51)으로 이긴 ‘난적’ 멕시코와 결승에서 맞대결한다. 여자 대표팀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만의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안산은 이번에도 혼성전과 단체전 결승에 올라 또 한번 ‘다관왕’ 등극을 눈앞에 뒀다.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 김제덕(경북일고)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에서 대만을 6-2(53-57 57-52 56-51 57-56)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남자 대표팀의 결승 상대는 ‘태극궁사 킬러’ 브래디 엘리슨이 버티고 있는 ‘숙적’ 미국이다.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2015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4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다. 한국 리커브 양궁은 지난 2019년 스페르토

헨보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혼성전에서만 1개 따내는 데 그쳐 올해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강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것은 1987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금메달 0개) 이후 32년 만의 일이었다. 혼성전과 남녀 단체전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25일 새벽 열린다. 한편, 컴파운드 남녀 대표팀은 각각 8강과 16강에서 탈락했다. 컴파운드 혼성전에서는 김중호(현대제철)와 김윤희(현대모비스)가 준결승에서 인도에 156-159로 져 동메달을 겨냥하게 됐다. 김중호는 대회 혼성전 4연패가 불발됐다. 김중호와 김윤희도 25일 새벽 덴마크와 3위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연합뉴스

북구청장배 온라인 태권도 대회 열린다

27일 41개 체육관 참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광주 북구는 오는 27일 제13회 북구청장배 온라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태권도 체육인과 동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대면 겨루기 대신 품새 영상을 촬영·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총 41개 태

권도장의 참가 영상을 접수받았다. 5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해 1위부터 3위까지 선정, 오는 27일 북구태권도협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상황 속 체육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연대를 통한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태권도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정부 정책과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체육의 일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마요르카의 이강인(가운데·20)이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와 볼을 다투고 있다. /AFP=연합뉴스

물갈이 나선 텍사스…양현종, 올 시즌 후 작별할 듯



미국 매체 “젊은 팀으로 변신 중”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가 물갈이를 시작했다. 텍사스는 다수의 베테랑을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33)도 올 시즌을 끝으로 텍사스와 인연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23일(한국시간)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외야수 윌리 칼훈을 조명하면서 텍사스의 현재 상황과 남은 시즌 과제를 설명했다. 이 매체는 “텍사스는 젊어지고 있다”며 “양현종 등 다수의 베테랑을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는데, 비시즌엔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텍사스는 올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22일까지 55승 96패 승률 0.364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서부 지구 최하위로 처졌다. 아메리칸리그 15개 팀 중 승률 14위에 머무르며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을 접었다. 2년 연속 지구 최하위,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텍사스는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15일 양현종을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20일에 일본인 우완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29)를 지명할당(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치했다. 디애슬레틱은 “텍사스는 올 시즌 중 크리스 데이비스, 데이비드 달을 방출했고 조이 겔로, 이언 케네디, 조일리 로드리게스, 카일 길슨 등을 모두 트레이드 했다”며 “텍사스는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의 변신은 끝이 아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크리스 영 텍사스 단장은 “일단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 그 흐름을 내년까지 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의 방향을 재설정한 텍사스가 양현종과 함께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라운드 룩에 합류한 양현종은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럽과 ‘고비의 10월’ 앞두고 맹활약

막내 이강인 마수결이 골
황희찬 25m 중거리 동점골
부상 손흥민 페이스 회복

한국 축구의 유럽 리거들이 모처럼 소속팀에서 동시에 신바람을 내 ‘고비의 10월’을 앞둔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미소 짓게 하고 있다. 부상 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조(보르도)가 다시 페이스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옮긴 유럽파 후배 선수들이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적 후 첫 공격포인트가 늦어져 팬들을 애타게 했던 ‘막내’ 이강인(마요르카)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드디어 마수결이 골을 터뜨렸다. ‘거함’ 레알 마드리드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마요르카 1-6 패)에 선발 출전해 팀이 0-2로 뒤지던 전반 25분 골대 왼쪽 하단 구석에 꽂히는 원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좀처럼 출전 기회를 주지 않던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동지를 둔 뒤 3경기 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다. 이강인이 윙트립하면서 벤투 감독은 2선 공격자원 선발 작업에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9월 A매치에서 부진에 종아리 부상까지 겹쳤던 황희조는 컨디션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 가고 있다. 황희조는 이날 몽펠리에와 원정 경기(3-3 무승부)에서 전반 18분 벼락같은 25m 중거리 슛으로 1-1 동점골을 넣었다. 지난 19일 생테티엔을 상대로 1, 2호골을 넣은 황희조는 2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부활’을 선언했다. 다만, 경기 종료 직전 허벅지에 불편감을 느껴 교체된 것은 ‘작은 불안감’을 남겼다. 잉글랜드에서는 ‘에이스’ 손흥민이 종아리

부상을 예상보다 일찍 떨치고 그라운드로 복귀한 가운데 새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주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울버햄프턴 데뷔전이던 왓퍼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폭발한 황희찬은 이날 토트넘과의 리그컵 32강전에서 처음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토트넘이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이겨 16강에 올랐지만, ‘코리아인 리거’만 놓고 보면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보다 황희찬이 더 빛난 경기였다. 이런 가운데 ‘괴물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도 터키 쉬페르리그에 일찍 적응해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벤투호에 10월은 최종예선 최대의 고비다. 7일 시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3차전을 소화한 뒤 중동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 12일 ‘난적’ 이란과 4차전을 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핵심 전력인 유럽 리거 여럿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28일 고교·대학 선수 42명 참가

프로배구 남자부 2021-2022시즌 신인 드래프트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프로의 문을 두드리는 선수는 고교와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42명이다. 센터 강정민(19·경북체고)과 센터 김민재(18·인하사대부고)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프로행을 타진한다.

또 대학 재학 중인 드래프트 신청자 40명 중 23명이 열린 드래프트에 지원한 2~3학년생이다. 청소년대표 선수 출신 레프트 박승수(19·한양대 2학년)와 정한용(20·홍익대), 아시아배구연맹컵 국가대표 출신의 홍동선(20·인하대 2학년) 등이 눈길을 끈다. 선수 지명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삼성화재(35%), 현대캐피탈(30%), 한국전력(20%), KB손해보험(8%), OK금융그룹(4%), 우리카드

(2%), 대한항공(1%)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삼성화재 1라운드 지명권은 황승빈과 박지훈의 트레이드 보상에 따라 대한항공에 돌아간다. 한국전력의 1라운드 지명권도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과 진행한 대형 트레이드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행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자 남자부 드래프트 역시 여자부처럼 비대면으로 열린다. /연합뉴스